

치매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 위해 '맞손'

제주도광역치매센터-한라일보 치매 관리 공동 노력 업무협약 치매 예방 도민 인식제고 심혈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와 (주)한라일보가 제주지역 치매관련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22일 한라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치매극복 선도기업 업무협약 및 현판 전달식'에서 양 기관은 제주지역 치매관련 정책의 추진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사인했다. 이번 협약은 한라일보가 도광역치매센터의 치매극복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서비스의 효과적 연계체계 구축, 도민의 치매관리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와 치매 인식제고, 치매환자와 치매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만생 한라일보 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한라일보는 도민 치매예방을 위해 치매학습지 '뇌똑똑'을 매주 연재해오고 있다"며 "도광역치매센터의 치매극복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며 지역노인의 치매 예방을 위해 지역인문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됐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준혁 도광역치매센터장은 이어 "협약을 맺기



22일 한라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와 한라일보사의 치매극복 선도기업 업무협약 및 현판 전달식에서 박준혁 도광역치매센터장(사진 왼쪽)이 강만생 한라일보 사장(오른쪽)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전부터 한라일보가 건강칼럼, '뇌똑똑' 학습지를 연재하며 지역사회 치매예방에 많은 도움을 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해 협력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라일보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매주 수요일

치매예방 주간학습지 뇌똑똑을 연재해오고 있다. 한편 한라일보는 올해 도내 모든 경로당에 한라일보 무료 보급과 책 보내기 운동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손경기기자 jungkson@ihalla.com

“설 연휴 항공권 구입, 1월말 기회”

제주항공 임시편 확정... 대형항공사 준비중

설 연휴가 3주 이상 남았지만 제주를 오가는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2일 항공업계와 항공권구매사이트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15-18일 설연휴 기간 제주와 김포를 오가는 항공권 예약률은 현재 여행사에 배정된 항공권을 포함해 80~90%에 달하고 있다.

대형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에서 1월말 또는 2월초쯤 임시편 투입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저비용항공사가 임시편을 투입할 지는 미지수다.

한 저비용항공사 관계자는 "제주공항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이 부족하고 제주-김포 노선에 최대한 항공편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임시편 투입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1월 말 여행사 등에서 일부 여유 좌석이 확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설 연휴기간 항공편 전행중이지만 임시편 투입 논의는 더딘 상태다. 제주항공이 설 연휴기간인 다음달 14-18일 매일 임시편 8편을 투입해 750여석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형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에서 1월말 또는 2월초쯤 임시편 투입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저비용항공사가 임시편을 투입할 지는 미지수다.

한 저비용항공사 관계자는 "제주공항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이 부족하고 제주-김포 노선에 최대한 항공편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임시편 투입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1월 말 여행사 등에서 일부 여유 좌석이 확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김포로 향하는 17일과 18일의 항공편 예약률은 100%에 달해 잔여좌석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 설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19일의 경우 아직까지 좌석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다행히 설날 당일인 16일은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모두 여유좌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해원기자 seawon@ihalla.com

도의원 출마예상자 선거법 위반 의혹

도선관위 "사실확인 중"

제주도의원 선거 출마자로 거론되는 한 인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는 A씨가 사전인 모임에서 술을 대접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제보가 지난 19일 도선관위에 접수됐다.

제보에는 2014년 제주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A씨와 당시 A씨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B씨가 지난 16일 도내 한 주점에서 주민들을 만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고가의 향음료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주점에 간 적이 없다. 당시 주점에서 결재된 카드가 본인 소유의 카드가 아니라 사실도 도선관위에서 확인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B씨는 "그날 주점에 간 적은 있지만 당시 자리에 A씨는 동석하지 않았다"며 "A씨는 후보자로 거론된 필본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주장이 사실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손경기기자

도교육청 올해 공사·물품 등 1800억대 발주

제주도교육청은 2018년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공사·물품·용역 발주계획(1803억원 규모)을 22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도교육청이 발주할 사업 규모는 시설공사 536건(1498억원), 물품 221건(152억원), 용역 287건(153억원) 등 모두 1044건이다. 이에 따른 예산은 지난해 1345억원에 견줘 34%(458억원) 늘어난 1803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상반기에 2018년 발주 예산 금액의 50%인 약 9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조기발주해 경제활

성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발주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발주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주기관, 발주시기, 공종, 계약방법, 공사규모 등의 주요정보는 제시돼 있어 업체들이 수주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발주계획은 물론 입찰과정, 계약체결 현황, 대가지급, 수의계약 내역 등 계약의 전 과정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백금탁기자

유치원·초등·특수학교 도교육청 교사 49명 선발

제주도교육청이 2018학년도 공립 유치원을 비롯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 교사 49명을 선발했다. 도교육청은 22일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제1차 시험(교직논술 및 교육과정)과 제2차 시험(심층면접,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수업실연, 영아능력 평가, 실기시험 등)을 거쳐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유치원 교사 10명, 초등학교 교사 25명, 특수학교 교사 14명(초등 12·유치원 2)이다.

최종 합격자는 23~24일 도교육청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합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유치원과 특수교사는 2월 19~23일 5일간 탐라교육원과 발령 학교에서, 초등교사는 2월 20~22일 3일간 탐라교육원에서 운영되는 신규교사 임용 전 직무연수를 수강해야 한다. 이를 위해 2월 8~18일 탐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독자제보 750-2231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제주 공공기관은...

학교 청소노동자 근무시간 단축으로 임금 제자리 제주도 한라산후생복지회 해산·매점 폐업 초강수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이어 최근 민주노총이 노사정 회의에 참석키로 하면서 노정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에선 행정이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와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폼수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하고, 노조는 연일 집회로 맞서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올해부터 제주도내 많은 학교가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7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자 각급 학교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없애기 위한 폼수로 근무시간을 단축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월 급여 100여만원 수준의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학교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했지만 많은 학교는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라고 용역업체에 요구했다"며 "지난해 7

월 올해 최저임금이 확정됐는데도 학교에서마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 역시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근무시간 단축은 문제라고 인식해 지난해 금요일(19일) 각급 학교에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나 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청소 관련 임무) 운영하기 때문에 공문 발송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매점을 운영해온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의 해산을 지난 10일 결정했다. 길게는 10여년간 매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들이 체불임금 해결과 제주도의 직접 고용 등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해야 하는 올해 들어 후생복지회 해산과 매

점 폐업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은 연일 제주도청 앞에서 파켓 시위 등을 통해 "공공성을 파괴하는 후생복지회의 해산을 철회하고 제주도가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관계자는 "매점 직원들을 위해 적정한 후생복지회를 계속 운영할 순 없어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혀 양측간 접점을 찾기 못하고 있다.

표성준기자 sipyo@ihalla.com

목실이 추우신가요?
여름에도 사용하는 난방기를 아시나요?
최의선 난방전문기 바스플로마스터가 있습니다

명가건축자재
타일, 위생도기, 수전교구 전문 도소매
최의선난방기 바스플로마스터 전국총판

제주시 이도2동 1070-9번지 ☎(064)702-0080
www.aupu.co.kr (바스플로마스터)

[한라산그린포크](#)

한라산그린포크 본점

♥ 1/22(월)~1/28(일) 금주 할인행사

도매가격으로 소매 판매합니다.

한우채끝(kg) 60,000원 → 47,000원
(1덩어리(3~6kg) 구매 시)

육우채끝(kg) 45,000원 → 37,000원
(1덩어리(3~6kg) 구매 시)

제주산 흑오겹살(kg) 25,500원 → 19,800원
(1판(4~8kg) 구매 시)

제주산 오겹살(kg) 19,500원 → 16,200원
(1판(4~7kg) 구매 시)

제주산 목살(kg) 17,500원 → 13,800원
(1덩어리(2~4kg) 구매 시)

제주산 흑목살(kg) 24,500원 → 18,800원
(1덩어리(2~4kg) 구매 시)

제주산 흑앞다리살(kg) 16,000원 → 10,500원
(1덩어리(3~6kg) 구매 시)

제주산 앞다리살(kg) 12,300원 → 9,800원
(1덩어리(3~6kg) 구매 시)

제주산 뒷다리살(kg) 7,800원 → 4,800원
(1덩어리(5~9kg) 구매 시)

전국 택배 ※ 단, 1덩어리 구매 시 썰어서 구매할 경우 kg당 1,000원 추가

경조사용 고기 및 족발 주문 판매 **매주 금요일** 간, 천원 판매하는 날

매일 오전 10시 따뜻한 삶은 족발 나오는 시간

(주)한라산그린포크 본점 T. 064)725-6588 / 758-6589

제주시 남성로 18 (웅담1동) 종합경기장 사거리 삼담우체국에서 바닷가 방향 120m

***영업시간 : 09:00 ~ 19:30**

손 타월을 뽐습니다
두서너 장,
때로는 그렇게 몇 번을 뽐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순간 내밀면
타월 함은 따스운 원가를 쥐어주고도
그 자리에 서서
뒷모습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오늘
무사한 하루를 안도하듯
미끈한 비누를 비비며 손을 씻는데
어김없이 타월은 그 자리에 있고
나는 언제나 그렇듯
그것을 쓱쓱 잡아당기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뽐하던 타월 함이
이 저녁
두어 장을 끌고 소리를 멈추고
더는 마중 손도 내놓지 않습니다

-변성연 시집 "아직도 크는 나무" 중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주)한라산그린포크 본점이 되었습니다.